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동향

2013. 4월 8일

차 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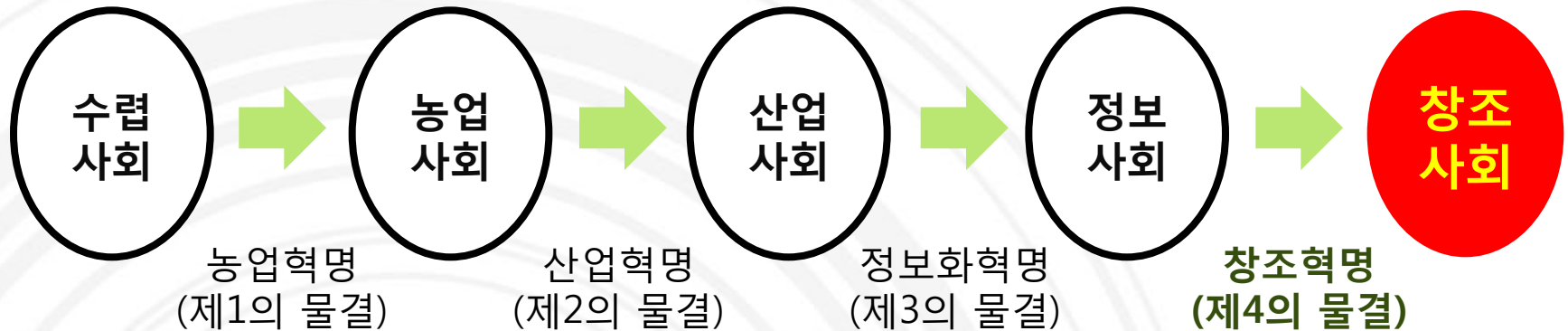
목 차

1. 창조경제 진화와 구성요소
2. 주요국 정책 동향
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4. 최근 주요 논의 이슈
5. 향후 정책 추진방안 제언

1

창조경제 진화와 구성요소

창조경제의 진화



구분	산업경제	지식경제	창조경제
경제발전 동인	토지, 자본, 노동	정보, 지식	상상력, 창의성, 혁신
주력산업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IT 산업 (반도체, 정보통신)	창조산업 (서비스, 예술, 소프트웨어)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창조경제의 진화-주요 보고서 및 도서

창조의 전략 Creative Economy

노무라연구소(1990)

John Howkins
(2001, 2007)



平成23年度
知的財産権ワーキング・グループ等侵害対策強化事業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に係る知的財産権等の侵害実態
調査及び創作環境等の整備のための調査)

報告書

平成24年3月

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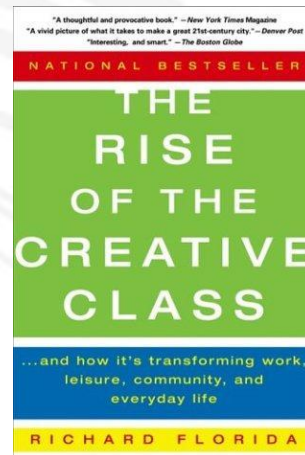


//creative
_ecologies//
where_thinking
is_a_proper_j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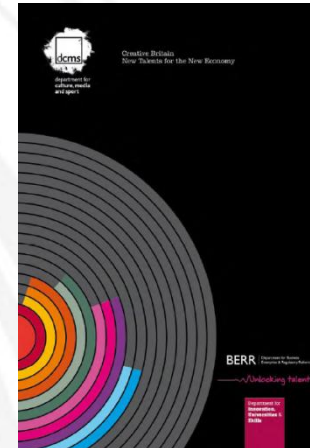
John Howkins

Creative Ecology

John Howkin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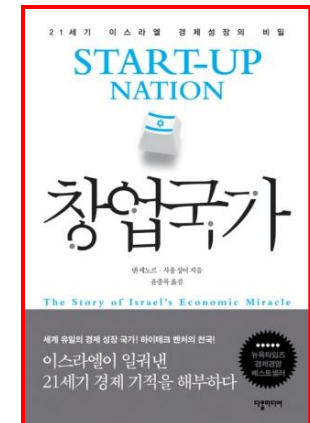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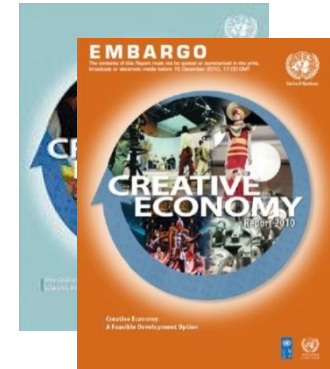


Creative Class
Richard Florida
(2002)



Creative Britain
Dept. of Culture,
Media and Sport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08/2010 (UN)



Dan Senor, Saul Singer
(2009)

**Cool Japan,
Creative
산업정책 보고서**
노무라연구소(2012)

Cool Japan Strategy

January 2012
Creative Industries Division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 기업 관점에서 창조화라는 제4의 물결을 예측하고 창조활동의 가치와 역할이 중시되는 창조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주장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창조사회
발전의 동인	농업혁명 (제1의 물결)	산업혁명 (제2의 물결)	정보혁명 (제3의 물결)	창조혁명 (제4의 물결)
인간기능 도구	다리	손, 팔	눈, 귀, 입	두뇌 (창조력)
인간 활동 도구	철, 연장	기계	컴퓨터	컨셉터(Conceptor) 발상지원시스템
사회 척도	곡물 수확량 (쌀가마)	칼로리	비트	창발량
핵심단어	오곡풍성 (五穀豐盛)	중후장대 (重厚壯大)	경박단소 (輕薄短小)	낙미애진 (樂美愛眞)
국력 척도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문화력
주도국	중국, 이집트	영국	미국	-

창조경제의 등장

장기 경제침체에 따른
새로운 경제체제 모색

주요국 자국기술 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성 증가

-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 영국의 전략적 성장동력화



[Facebook App. Economy]
미국내 정규직 개발자 182,744명
121억 9,000천 달러 경제효과

[Apple]
창립 이후 60여 만 개 일자리,
App. Store를 통해 80억 달러를 제공

1997~2006년 창조기업 연평균 성장률이
경제성장률(3%) 2배인 6.9% 수준,
수출규모는 9.5% 성장

창조경제를 말하기 전에...창조란?



Ability to produce something new through imaginative skill, whether a new solution to a problem, a new method or device, or a new artistic object or form.



Production by one or more people of ideas and inventions that are personal, original and meaningful
(John Howkins, *Creative Economy*, 2002)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When you ask creative people how they did something, they feel a little guilty because they didn't really do it, they just saw something
(Steve Jobs, *Wired*, Feb. 1995)



Creative strategy follows the natural three-step method of the human brain: **breaking down a problem into parts and then searching for past examples to create a new combination to solve the problem.**
(William Duggan, *Creative Strategy*, 2012. 4)



새로운 창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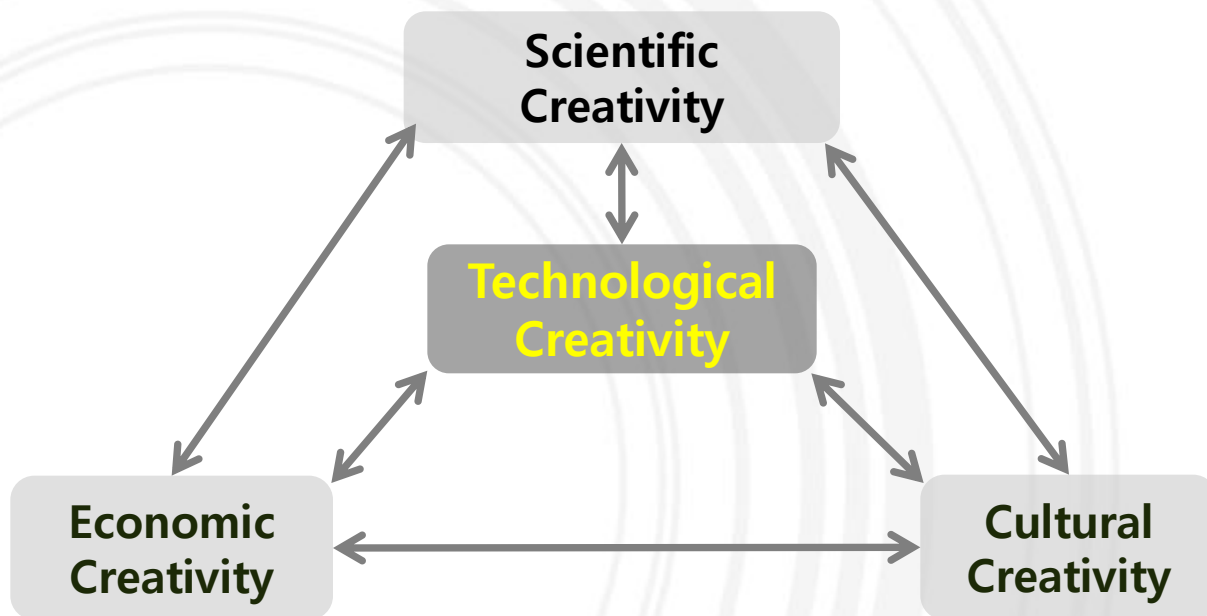


융합적 창조



해당 영역에서 독창적이고,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 혹은 과정 (KEA European Affairs, 2006)으로 아래의 창의성이 서로 연계

호기심, 실험의지, 문제해결 탐구



기술, 비즈니스, 마케팅 등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활동

상상력, 독창적 아이디어로 생성하는 텍스트, 소리, 이미지 표현으로 세상을 표현

창조경제의 구성



창조경제 구성요소...(1) 창조산업 정의



창조사회 성장동력으로 창조대행, 창조서비스, 창조유통산업 등 3개 산업을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1990)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성에 의해 시장으로 부터 선택되는 제품과 서비스(2012)

저작권을 인정받는 작품의 창작, 제조, 생산, 방송, 유통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산업들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창조성, 문화, 경제, 기술의 접점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동시에 사회 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간 개발을 촉진시키며 지적 자산을 창조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산업

개인 창조성, 기술, 재능에 기반을 둔 산업들과 지식재산형성과 이용으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들



창조경제 구성요소...(2) 창조산업 범위



창조경제 구성요소...(3) 창조클래스와 기업

- (창조클래스) 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역(Richard Florida, 2002)



Super Core Class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새로운 상품과 소비재 개발 능력을 지닌 집단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교수, 소설가, 예술가, 배우, 디자이너, 건축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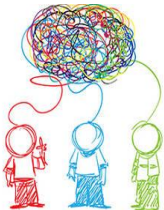


Creative Professionals

고전적 의미의 전문지식인으로 지식체계에 의존해 창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관리, 경영, 회계, 법률, 금융업 등 광범위한 지식집약형 산업종사자 등)

- (창조기업) 자신만의 창조성, 기술 및 재능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생성과 이용으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생성이 가능한 기업



제품 차원이 아무도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격동적이며,
경험적 도전이 강한 특징

창조경제 구성요소...(4) 창조클러스터와 창조도시

- (창조클러스터) 창조산업 혁신의 원천으로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이 특정지역에 모인 네트워크로 창조도시로의 발전과 연계

창조적 결과물의 발상, 생산, 보급, **창조적 활동 자원들을 최적화하는 등 창조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클러스터의 활동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생성



- (창조도시) 지역 창조역량(창조잠재력)이 높고 창조성을 기반으로 내발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창조 계층이 모여 창조자본이 형성되고, 창조기업이 집중되어 성장된 도시**

창조경제 구성요소...(5) 창조생태계

- ▶ 창조기업, 창조계층, 창조도시 등 창조 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 아이디어를 시스템적, 수용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틈새분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는 것이 특징
- 창의성과 관련된 생태계적 사고의 네 가지 요소로 다양성, 변화, 학습, 적응을 제안

창조경제 정의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기반으로 지식자산을 생성·활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잠재성이 있는 산업들로 구성된 경제체제

- 지식재산권이 창조적 행위를 창조산업으로 변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이 있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한 진화론적 개념으로 창조적 자산을 생산하는 모든 경제 활동



Peter Coy

아이디어라는 생산요소를 활용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

John Howkins



창조경제 동향리뷰

- 창조경제는 학문적 개념이라기 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적 개념**
- 인간 창의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경제 침체 해소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짐**
- 창조경제 핵심인 창조산업은 핵심 투입요소가 아이디어 및 상상력으로 **'창조'의 정의 등에 따라 상이한 것이 특징**
 - 국가별 산업,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누적 자산과 강한 분야, 국제기구 별 고유 임무에 따라 범위가 상이한 것이 특징(국가별 절대 비교에는 한계)
 - ※ 최근 일본에서는 INPUT(창의성)과 함께 OUTPUT(가치) 기반 산업 범위도 논의
- 주요 구성요소인 창조클래스, 창조기업, 창조도시·클러스터 등의 개별적 발전과 전체의 **원활한 생태계 구성이 창조경제 성공 핵심요소**

2

주요국 정책 동향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2011. 2)**
- **2기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2013. 1.22) , 국정연설(2013. 2. 12)**
- **Transformation and Opportunity : The Future of the US Research Enterprise(2012. 11, PAC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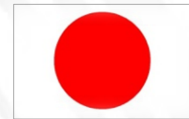


- **Europe 2020(2010.3)**
- **Framework Programme**



- **Law for the Enforcement of Industrial R&D**

- **신성장전략 (2010. 6)**
- **일본재생전략(2012. 7)**
- **아베노믹스**
- **시정방침연설 (2013. 2.28)**
- **Cool Japan Strategy (2010)**
- **Cool Japan, Creative 산업정책 보고서(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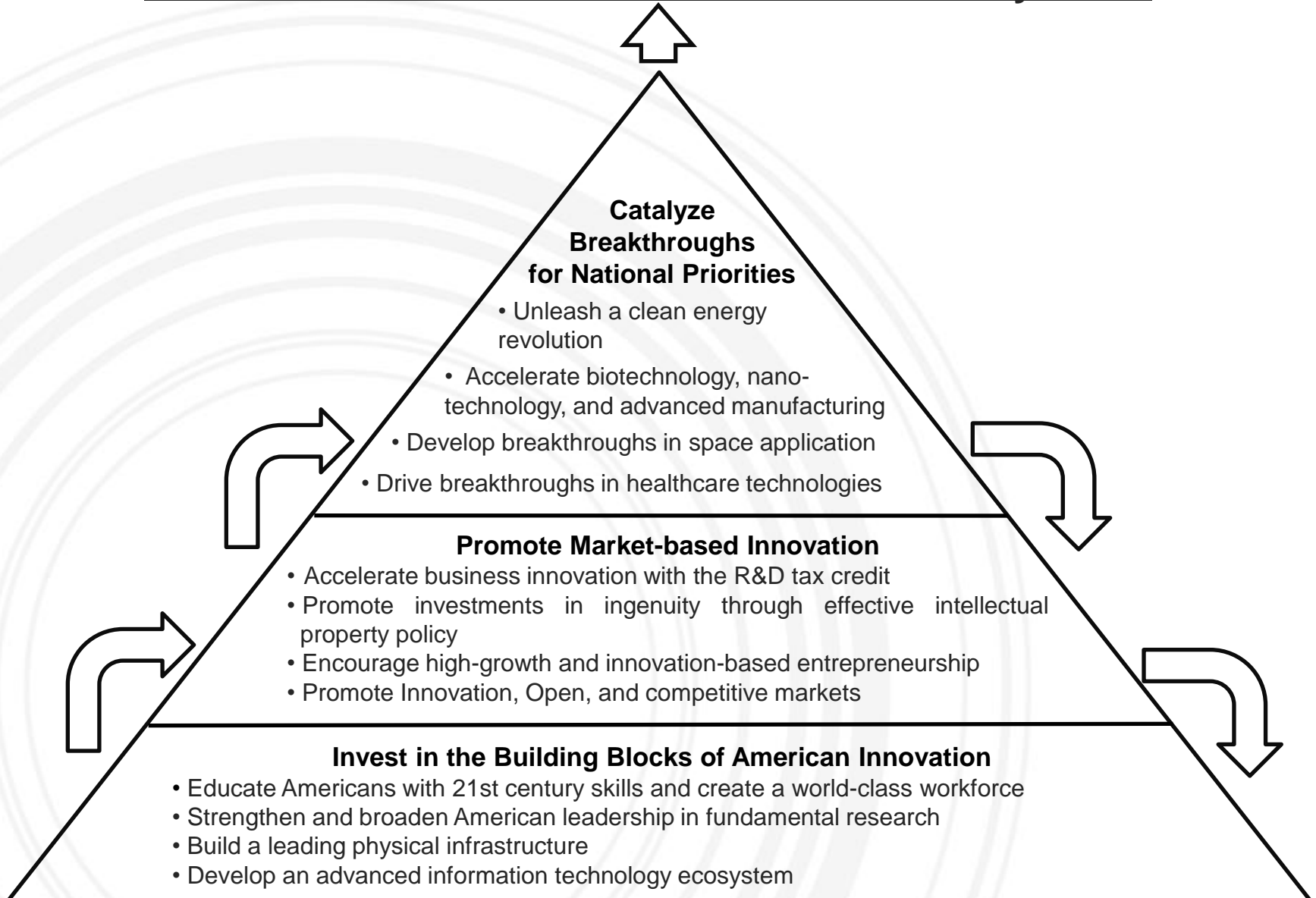
-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2004. 7)**
- **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2008)**

미 국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2011. 2)

-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이 혁신 역량에 달려있음을 언급하며, 창조성(creativity)과 상상력(imagination)에 대한 투자가 미래 일자리와 산업을 보장함을 강조
- 빠르고 광범위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내재된 재능과 독창성을 결집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노력을 표명
- 특허개혁과 창업미국을 강조, 연구개발 세제혜택, 혁신적이고 경쟁적 시장 조성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혁신 촉진, 역량을 지닌 인재양성과 기초과학 주도권 강화 추진
- 추진과제로 세계 최고수준 인력 양성, 기초연구분야 미국 주도권 강화, IT 에코시스템 구축, 시장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R&E(Research & Experiment) 세액 공제, 효율적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재능과 독창성 촉진 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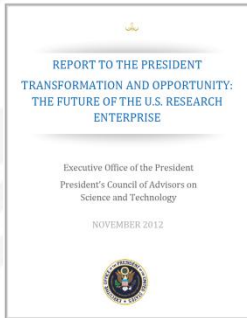
Innovation for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 2기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2013. 1.22) 와 국정연설(2013. 2. 12)

- (2기 취임사)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이 가능한 기술들을 선점하여 경제활력 유지를 강조(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선도 강조)
- (국정연설) 세계 우수인재 유입을 통해 미국을 □ 혁신의 요람화□ 를 위한 이민법 개정, 미국기업 생산기지 본국이전 가속화(reshoring)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
 - 이민법 개정을 통한 해외 고급 인재 유입으로 기업의 혁신성과 창업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미국 IT-과학기술계 기대에 부응
 - 미국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reshoring)을 위한 적극적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강화
 - ※ Caterpillar는 일본, Ford는 멕시코, Intel은 중국에서 미국 현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Apple은 Mac PC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 예정
 - 특히 대학-기업-창조계층(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과 새로운 파트너십 개발 시 인센티브부여, P-TECH 확대 강조

Transformation and Opportunity : The Future of the US Research Enterprise(2012. 11, PAC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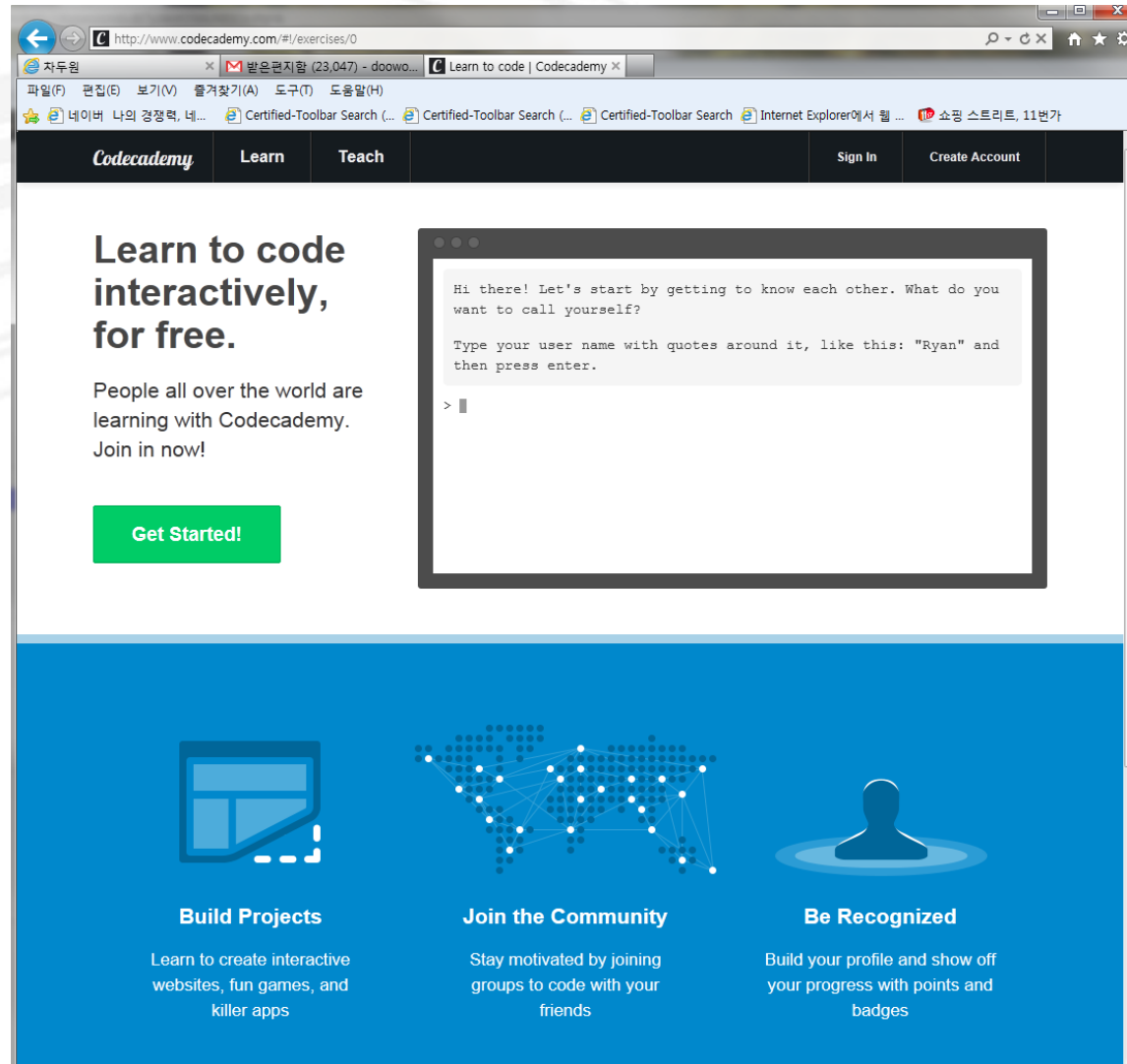


- 과거 20년간 세계적 경쟁 심화, 기업의 강화된 단기적 성과 추구는 민간부문의 기초연구와 초기 응용연구를 감소
- ① 새로운 산업 플랫폼 형성 연계 대학 기초연구 강화, ②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장려 정책을 제시(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율을 현재 2.9%에서 3.0%로 인상, 시험연구비 세액공제의 영구화)

P.TECH 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 뉴욕교육부,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YC College of Technology, IBM 등 민간-공공 파트너십으로 2011년 9월 104명 학생으로 개교
- IT 및 공학 분야 취업교육과 진학교육이 통합된 9~14학년 제도를 도입해 경제 발전-교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선도적 모델로 고등학교와 2년간 대학교육을 포함
- 미국 고등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예견하는 시스템으로 평가 받는 조기 고등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새로운 교육 개혁 혁신 모델로 등장

[참고] Lean-to-Code Movement



일 본

◉ 신성장전략(2010. 6)

· 2020년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장동력과 창조산업 중심 'Cool Japan Strategy'을 제시

→ 구조적 경제 문제를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본 수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성장방식(제3의 길)을 제시

※ 제1의 길은 공공사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1970년대까지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
제2의 길은 시장원리주의적 성장방식으로 공급측면 효율성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 2020년 신성장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제시(2010. 9)

→ 신성장 주도 전략분야로 환경·에너지, 인프라 산업 및 시스템, 의료·간호·건강산업과 함께 문화산업 중심의 창조산업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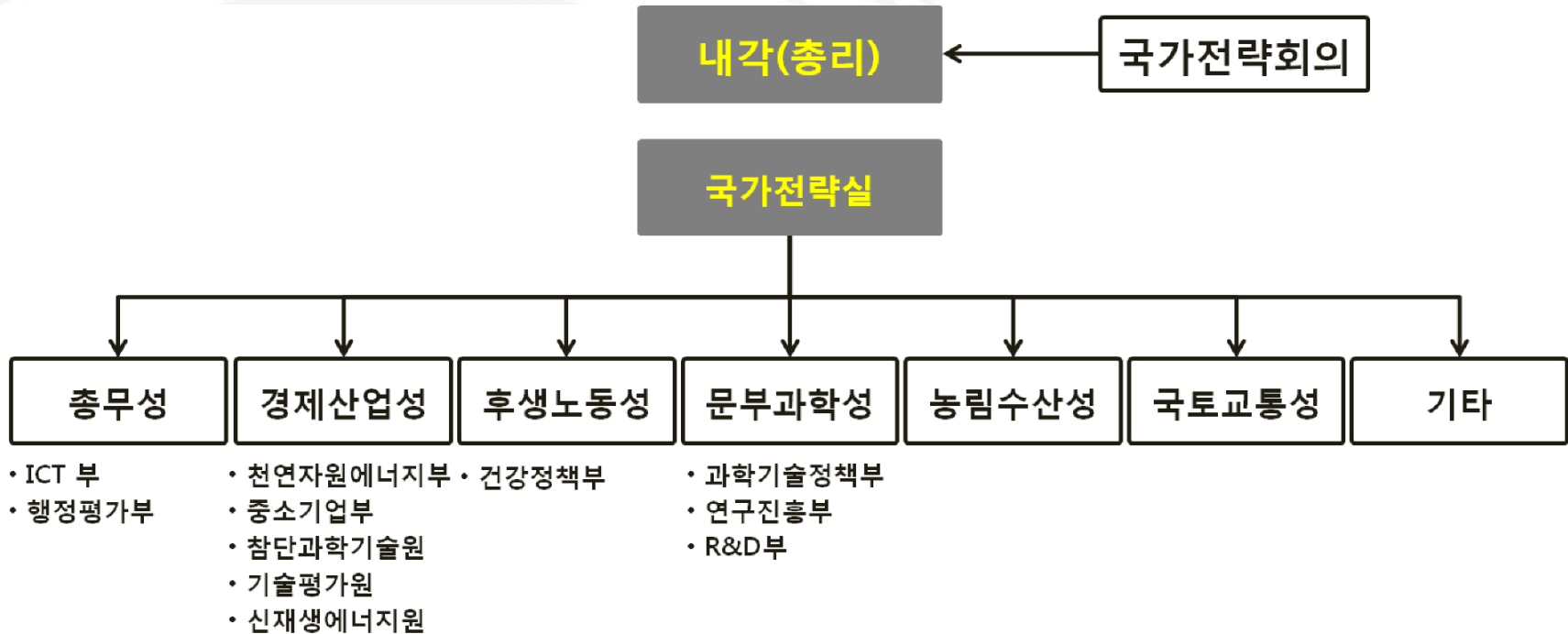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콘텐츠, 음식, 관광 중심 Cool Japan Strategy을 국가전략 분야로 적극 지원

→ (가칭) 창조산업부 신설, 콘텐츠 해외 수출 지원 펀드 조성, 일본 콘텐츠의 아시아지역 전개, 문화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해외 시장 수출, 콘텐츠 인재의 육성과 보급 기반 정비, 세계적 창조산업 기업 창출·육성 등 9개 액션플랜을 제시

◉ 일본재생전략(2012. 7)

- 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경제 발전 전략으로 신성장전략에 이어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재건발전 전략인 □ 일본재생전략 : 프론티어 개척, 공창(共創 : 함께 창조)□ 을 발표
 - 성장력 강화, 중산층 부활, 세계화를 목표로 2020년까지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2%, 1,450조원 신규시장 창출, 일자리 480만개 등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
- 신성장전략 7개 분야 육성*에 중소기업, 농수산물, 국토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전략을 새롭게 추가하고 전략분야 목표 별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행과정의 관리를 재검토하기 위한 PDCA(Plan, Do, Check, Action)을 추가
 - 관료주의, 실적주의 등 폐해 방지를 위한 수평적 행정조직의 개편과 행정절차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총리실 내 국가전략실에서 추진 및 총괄을 담당하고 각 부처들이 관련 전략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행과정의 관리와 재검토가 강화

[참고] 일본재생전략 추진체계



※ 매년 9월 공청회를 열어 업무 수행과정을 보고하고, 5월 총리 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업무 결과를 평가

◉ 아베노믹스

-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핵심으로 금융정책, 사회자본 확충을 통한 재정정책, 기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성장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거시·산업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

→ 경제산업성은 그 동안 수 차례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아베노믹스는 제조업 국제경쟁력 부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전략 추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민간 투자 촉진을 강조

- 민간기업 투자 확대, 제조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경쟁력 회의(의장 : 총리)**를 **설치**하고 전략시장 창조계획, 국제전개전략, 산업재흥계획 수립 등을 핵심으로 **2013년 6월까지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예정**

(전략시장 창조계획)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경제적 클린에너지 수급, 안전하고 편리한 경제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세계 집중을 받는 농업 수산업 등 지역자원 4대 분야를 전략목표

(산업재흥계획) 일본을 세계에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개인 가능성을 최대 발휘하여 고용·소득이 확대되는 나라를 목표

(국제전개전략) 산업과 인재의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산업투자입국 실현과 무역입국 재현을 목표

- 이와 함께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개편을 통해 예산배분을 가진 실질적 사령탑으로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

◆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연설(2013. 2.28)

- 경제성장과 적극적 Cool Japan Stratgy 전략 추진 등의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과학기술 부문 아베노믹스 전략을 제시

→ 경제성장을 위한 의지와 용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을 제시

(세계의 프런티어) 일식, 일본 농산물, 첨단의료(iPS 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신약), 창조산업(콘텐츠, 패션, 문화와 전통), 환경기술의 해외 전파를 통한 해외 시장 개척

(일본의 세계 성장 센터화) 대담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세계 연구자가 모이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추진

(세계 최고의 기개(氣概)) 세계 최고 수준 목표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지원

- 부처의 종적관계를 타파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강력한 사령탑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성역 없는 규제개혁으로 세계우수 연구자가 일본으로 모이는 환경 정비 추진, 국제첨단 테스트 도입 강조
- 지역 단위의 창의연구를 활발히 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혁을 통한 규제완화 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 만들기 지원
- 세계 최고수준의 학력을 기르기 위해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글로벌화에 대응한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 대학을 육성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구는 창조의 씨앗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직간접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하는 등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조
- 기초연구는 국력의 원천이 되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의 유지·발전과 창의적 새로운 산업 창출,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인식

(독창적이고 다양한 기초 연구 강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반적 비용 강화, 과학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신규 선정율 제고 및 간접비용 확보, 다양한 연구자금제도 정비 및 과학연구비 보조금과의 연계강화 등

(세계 TOP 수준의 기초 연구 강화) 국제수준의 연구 추진과 인재 확보를 위한 다면적 지원, 국제적 두뇌 순환을 위한 최첨단 대형 R&D 핵심 거점 형성, 해외 우수 연구자의 초빙 촉진을 위한 해외 연구기관에 정보 제공 강화

● Cool Japan Strategy (2010)

- 2010년 이후 콘텐츠, 음식, 관광 등을 축으로 창조경제를 향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적극 지원

→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공동으로 대상 제품 등을 수출상품화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목표로 2010년부터 정책 검토를 적극 실시 (2013년 정부예산 총 368억엔)



[쿨 재팬 전략]

[쿨재팬 전략을 활용한 일본 부흥 캠페인]

• Cool Japan, Creative 산업정책 보고서(노무라종합연구소, 2012.3)

-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12년 경제산업성의 위탁 과제로 일본 창조산업 분야의 특허 침해 사례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 주요국의 창조산업 정의는 창조성 등 INPUT에 주목하고 있고, 창조산업은 무형의 제품과 서비스로 한정하여 창조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창조산업 정의) 가격이 아니고 창조성의 부가가치에 의해 시장에서 선택되어지는 제품, 업종, 인재 등으로 구성된 산업을 의미
 - 기존 Cool Japan Strategy에서 제시한 6개 분야(패션, 음식, 콘텐츠, 지역토산품, 생활, 관광) 이외에 광고, 아트, 디자인을 포함한 9개 분야를 제시
- (창조성 정의) 개인, 조직적인 제품의 제조, 유통,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제공 프로세스에서 독창적 혹은 고유의 INPUT(예술, 문화적, 지적, 전통적, 혁신적 대상을 의미)이며, 개인 등 인적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재능
- 위의 분야를 일본표준산업분류와 matching 시켜, 일본의 창조산업 규모를 산정하고 각종 특허 침해 사례를 조사 분석

영국

◉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2004. 7)

· 영국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 발표

- 현재 GDP대비 1.86% 수준인 국가연구개발투자를 10년후 GDP대비 2.5%까지 확대할 계획
 - 정부는 민간부문과 함께 연구기반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및 부의 창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하고 기술혁신 시스템 개혁을 위한 본 보고서의 장기투자계획 이행
 - 정부는 연구계, 기업, 비영리기관 등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정책 및 투자계획 수립 시 활용
- 과학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대학 및 공공연구소, 경제의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기반 구축, 기업의 R&D 투자확대, 지식이전 및 기술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자신감 및 참여 증진, 정부 내 과학기술 혁신 방안 등을 제시

• 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2008)

- 1997년 Tony Blare 총리 내각 출범 이후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1998년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t. of Culture, Media, Sport)를 설치

→ 1997~2006년 창조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경제 성장률(3%) 두 배를 상회하는 6.9%
(2009년 창조산업 부가가치는 총부가가치의 2.89% (363억 파운드), 2010년 일자리는 150만개
(전체 일자리의 5.1%), 2011년 기업은 총 106,700개로 전체의 5.1%)

- 2008년 Gordon Brown 총리는 향후 10년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국이 당면한 도전을 세계화, 안보, 환경 등 3가지를 지적하고 과학, 혁신, 창조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영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정부 개혁을 강조

→ 2008년 4월 창조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단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 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를 통해 8개 부문 26개 정책 과제를 제시

→ 과제별 담당부처 및 공공기관을 명시하는 등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다는 Arm's Length Principle을 변화

→ 창조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국 정책을 EU 정책에 반영하고 영연방 네트워크, UNESCO, WIPO 등을 통해 전 세계 확산 추진

-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에는 산업혁명 발생지인 영국의 제조업 부진 및 경제침체해결을 위해 경제기여 잠재성 높은 창조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전략

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8대 부문 26개 추진과제

8대 분야	26개 정책과제
1. 창조교육 실시	1. 재능 발견(Find Your Talent) 프로그램 지원
2. 일자리로의 재능 전환	2. 재능경로 제도(Talent Pathway Scheme) 운영 3. 다양한 창조 인력 육성 활동 장려와 모범사례 확산 4. 산학협동 연구 장려 5. 혁신적 창조학습 장소 설립 장려 6. 아카데미 허브(Academic Hub) 영향 분석 7.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마련
3. 연구 및 혁신 지원	8. 창조산업 발전 프로젝트 추진 9. 창조적 혁신가 성장(Creative Innovators Growth) 프로그램 추진 10. 기술이전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 구축 11. 창조산업 계량화 연구 추진
4. 자금 및 성장 지원	12. 창의적 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 제공 13. 문화리더십 프로그램 14. 기업자본기금(Enterprise Capital Fund) 활성화
5. 지식재산 장려 및 보호	15. 불법파일 공유 공동대응 의무화 법령 제정 16.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이 보호·장려되는 활동계획 수립 17. 지식재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 제고
6. 창조 클러스터 지원	18. 지역 창조경제 전략 프레임워크(Regional Creative Economy Strategic Framework) 시범 구축 19. 미래 시장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 검토와 제거 20. 지방 인프라 메뉴(Menu for Local Infrastructure) 개발 21. 도시기업 창조 허브인 혼합 미디어 센터(Mixed Media Centre) 설립
7. 글로벌 창조허브 구축	22. 공연장 안전성 강화 23. 창조산업 역량 향상 5개년 전략 추진 24. 세계 창조기업 컨퍼런스 출범 25.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 지역 축제와 상호 이익관계 구축
8. 전략 업데이트	26.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구축

유럽연합

◉ Europe 2020(2010. 3)

- 연구개발·혁신 시스템 개혁, 연구주체 간 협력, 과학기술 인력의 충분한 공급, 창조성·혁신·기업가 정신 교육, 창의적 문화산업 육성, 민간 R&D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혜택 강조

Flagship Initiative	추진 전략
스마트 성장	① 이노베이션 연합 : 연구, 혁신을 위한 기본 여건과 자원접근 개선을 통해 혁신역량과 투자를 강화하고, 과학과 시장과의 사이의 갭을 메워 혁신과 제품화 연계 강화 ② 젊은이의 자유로운 이동 : 교육시스템 개선과 유럽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③ 유럽에서의 디지털 과제 : 시민들의 창조성 제고와 연계 강화, 혁신 촉진을 위해 2013년까지 전유럽 시민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지속가능한 성장	④ 자원 효율적인 유럽 : 자원 효율적이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 ⑤ 환경에 우선성장 산업 정책 :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새로운 기술·기능을 개발하고 수백만의 고용 창출 추진
포용적 성장	⑥ 새로운 기능과 고용을 위한 의제 : 노동 이동성 증대를 통한 노동시장 현대화, 노동 참여 증대를 위한 평생 기술교육 추진 ⑦ 빈곤 대책을 위한 유럽 플랫폼 : 경제적·사회적·지역적 통합 촉진, 빈곤 및 소외 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 문화와 창조산업의 커다란 잠재성에 주목하고 Europe2020 실현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조직 구성과 프로그램을 추진
 - Culture Program(2007~2013) 후속으로 Creative Europe (2014~ 2020) 추진으로 창조산업 경쟁력 향상을 제고
 - 2011년에 유럽디자인 리더십기구(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 출범으로 21세기 디자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럽인의 삶의 질 향상, 유럽과 지역 경제와 경쟁력 확대, 공공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진
- 2009을 '유럽 창조와 혁신의 해'로 지정하고, 개인 창의성 증진을 위해 회원국 지원
 - 유럽 각국 장관들은 창조경제는 재능 있는 인적 자원을 요구하며, 유럽은 끊임없이 재능 있는 인력을 교육·양성·유치하고 정주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
 - 창의성과 혁신 관련 범유럽 프로젝트인 Europe INNOVA, PRO INNO Europe, Intelligent Energy Europe 등을 추진하고, 정치, 경제, 예술계 명사 26명을 앰배서더로 선정하여 유럽인의 혁신과 창의성 인식을 고양

◉ Framework Programme

- 1984년부터 수행된 범유럽 차원 공동연구개발 사업인 **EU Framework Program**은 현재 7차(2007~2013)가 진행 중이며, 8차 프로그램을 기획 중
 - 7차 프로그램은 협력(Cooperation), 아이디어(Idea), 인간(People), 역량(Capacities) 등 4개 분야를 추진 중
- 8차 프로그램(2014~2020)인 **Horizon 2020**은 현재 기획단계로 그간 변화된 경제 사회와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 기획 중
 - (경제사회) 기후변화, 고령화, 글로벌 경쟁, 사회 통합 등 현재 유럽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 해결의 적극적 지원
 - (연구개발 환경) 산학연, 공공-민간 협력 강화, 산업계 참여 활성화 및 유럽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실패를 허용하는 실험적 도전적 연구(Frontier Research)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교육, 혁신 세 가지 분야의 정책적 통합과 조화를 추진
- 특히 유럽연합은 R&D 기획단계부터 상용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

이스라엘

◉ 산업연구발전촉진법(Law for the Enforcement of Industrial R&D)(1984)

· 산업연구발전촉진법 시행 이래 우수한 두뇌와 인력을 활용한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 추진

- 위의 법에 따라 기업의 제품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산업무역노동부 내에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을 설치하고, 수석과학관(Chief Scientist)이 산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총괄
- 정부 지원의 기본 목적은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상기 법의 제정으로 하이테크 기업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어느 규모로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정책은 창업 기업의 개념과 니즈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

<제1기> 1970~1980년 중반	하이테크 국가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초기적 기반구축
<제2기> 1980년 중반~1992년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인큐베이터, 기업의 R&D 지원 프로그램 실시
<제3기> 1993년 이후~	클러스터 형성, 벤처캐피탈 투자, 전략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요즈마 프로그램(벤처캐피탈 투자 프로그램)의 성공, 러시아 붕괴에 따른 우수한 연구자 및 교원의 이민 유입

◉ 국방부문에서 시작된 하이테크 산업과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 정부 R&D 역량이 국방 연구에 집중 투입되었고 그 결과 방위산업 및 군사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어 활용

- 국방연구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80년대에는 국방연구의 비율이 GDP의 3.1%로 총 연구 개발비의 65%가 국방연구에 투자
- 특히 항공, 우주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민간기업에서 이를 사업영역으로 활용
- 1975년을 정점(GDP 대비 32%)으로 국방 투자가 감소하자 국방관련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수 기업들의 성장기반을 제공
- 군 의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로 이공계 출신 유능한 인재들이 군 복무 시 과학 기술자로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등 병역기간이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고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육,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창업 성공 사례가 많음

· GDP대비 0.6%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80%를 대학이 수행

- 6개의 종합대학과 1개의 대학원대학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연구중심대학으로 이스라엘 기초연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21위), Tel Aviv University(166위)은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 수준
- 2000년대 4명의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기초과학강국 입지를 구축

◦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추진과 해외이민자 활용

· 이스라엘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

- 이스라엘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와 벤처캐피탈을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 구분 가능
- 보조금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지원 정책의 특징은 Grant 방식으로 연구개발비의 50~80% 까지 지원하며 사무실 임대에서부터 사업기획, 타당성 조사, 초기자금 지원 등 창업의 전 단계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으로 창업의 성공률 제고
- 요즈마 캐피탈과 같은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을 통해 창업기업이 부족한 상업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R&D 역량강화를 지원

· 구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계기로 이주해온 우수한 과학자 및 연구원들의 유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

- 1948년 건국 당시 인구는 80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7백만 명을 넘어 9배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약 300만 명이 해외 이민자로 40%는 구소련 이주민
- 구소련 이주민 40% 이상이 대졸 이상으로 대학교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상당수 포함
- 산업무역노동부에서 운영한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이들 과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참고] YOZMA 벤처 캐피탈

-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설립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공공투자 프로그램
 - 요즈마 프로그램은 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자금조달을 해결해주기 위해 설립된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2대1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정부지분을 민간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 운영방식
 - 건당 800만 달러가 1개의 연구 개발업체에게 전용 배정
 - 현재 진행 중인 경영활동에 계속 참여하며 파트너들에게는 일정한 기한이 종료된 후 펀드에 있는 요즈마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받음
 - 이스라엘인 설립, 이스라엘인을 핵심 지위에 채용하는 외국인업체들과의 협력 강화
- 요즈마 벤처캐피탈 출범으로 1991년 1개였던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은 2010년 현재 70개를 넘고 있으며 자금 규모도 12.6억 달러에 이름

국제기구

▶ (UN) 개도국 경제발전 수단으로 관심



Creative Economy
Report 2008-2010



- 보고서는 창조산업 개념과 정의, 다차원적 분석, 창조경제서비스와 국제적 거래 지식재산권의 기술 역할과 창조경제 발전전략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
-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인간 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의 원동력으로 창조경제의 가치를 설명
- 개도국의 정치, 기업환경, 열악한 글로벌 시스템 기반 등에 따라 창조능력을 개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창조경제를 통한 개도국 경제개발 수단으로 관심

- UNESCO는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각 도시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창조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
- ILO는 창조산업과 고용증진, WIPO는 지식재산권, WTO는 GATS 협상 주요의제로 창조경제 및 산업에 관심

주요국 정책 추진 공통점

◦ 경제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의 공통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정책을 추진 중

· 국민의 잠재된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 가능성 등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강한 분야를 대상으로 세계 시장 점유를 위해 집중 지원하고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창조산업 육성을 강조

- 창조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지하고 효율적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재능과 독창성 촉진 강조
- 창조경제의 주도권을 지향하는 영국도 창조산업 뿐만 아니라 과학, 혁신, 금융산업과 함께 창조산업을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적 기초연구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기초연구 주도권 유지 혹은 확보와 함께 상용화를 고려한 기초연구 추진을 강조

- (미국) 기초연구로 새로운 산업 플랫폼 형성, (EU) 기획단계에서 상용화까지 고려하는 체계적 기초연구 기획 강조, (일본) 새로운 산업 창출 등의 기반 창출 등 기초연구와 산업(경제성장) 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조
- 고위험 혁신적 연구와 함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강조(성실실패 → 실패 포용 문화)

- **혁신 원동력은 민간부문에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는 혁신 촉진자 역할 강화를 통해 자국의 혁신거점화를 강조**

- 자국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자국 기업 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reshoring) 촉진, 세계 우수기업 유치 등 최고의 기업경영환경 제공을 위한 기업과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
- 해외 우수인재 유입, 기업 혁신성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와 고성장 신생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강화
- 산업계와 민간, 산학연 등의 협력강화가 중요 이슈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자 등 혁신의 촉진자 역할 강화
 - (일본) 민간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일본경제재생본부 설치,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개편으로 연구개발 성과와 경제성장 연결 전략을 추진하고, '국제첨단테스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제도와 일본 제도를 비교하여 제도개혁과 시장 창출 기폭제로 활용
 - (미국)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실패 보완과 규제 완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금융지원, 산업-공공연구 연계강화, 창업교육 강화, 인재교육 강화 등 창조와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행정조직의 혁신 역량과 관리체계 강화

- (영국) 영국은 Creative British 추진을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Arms Length 원칙'을 배제 → 과제별 담당 부처와 조직을 명시
- (일본) 신성장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PCDA 체제 도입, 관료주의와 실적주의 수평적 행정조직 개편과 절차 투명화, 총리실 중심의 부처 협력체제 강화 등을 추진
 - 총리실 내 국가전략실에서 총괄하고 각 부처들이 관련 전략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행과정의 관리 체제와 재검토를 강화(매년 9월 공청회, 5월 총리주재 평가 실시)

● 창조산업-R&D-교육-일자리 정책적 통합 추진

- 해외 우수인재의 영입과 함께 자국의 최고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를 통해 창조성과 혁신성 강화
- 최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일자리 해소와 사회와 기업의 인력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 등 산업-과학기술-교육-일자리 연계 생태계 강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 개정, 대학-기업-창조계층과 새로운 파트너십 개발 시 인센티브 제공, 미국 모든 학생들에게 P-TECH 제공 필요성을 언급

● ICT 분야 기술력 확보와 투자의 지속적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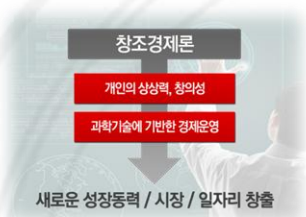
- (미국) IT 에코시스템 구축, Learn-to-Code 강조, (일본) 관련 산업 생산성 향상 수단, (유럽) 국민의 창의성과 혁신 강화수단으로 활용

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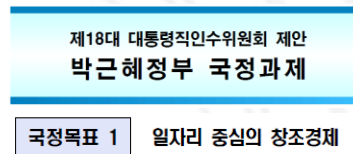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비전인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국정목표로 제시
 -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과 함께 성장동력이 멈춰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제시



창조경제론
(2012. 10)



대선공약집
(2012. 12)



국정과제
(20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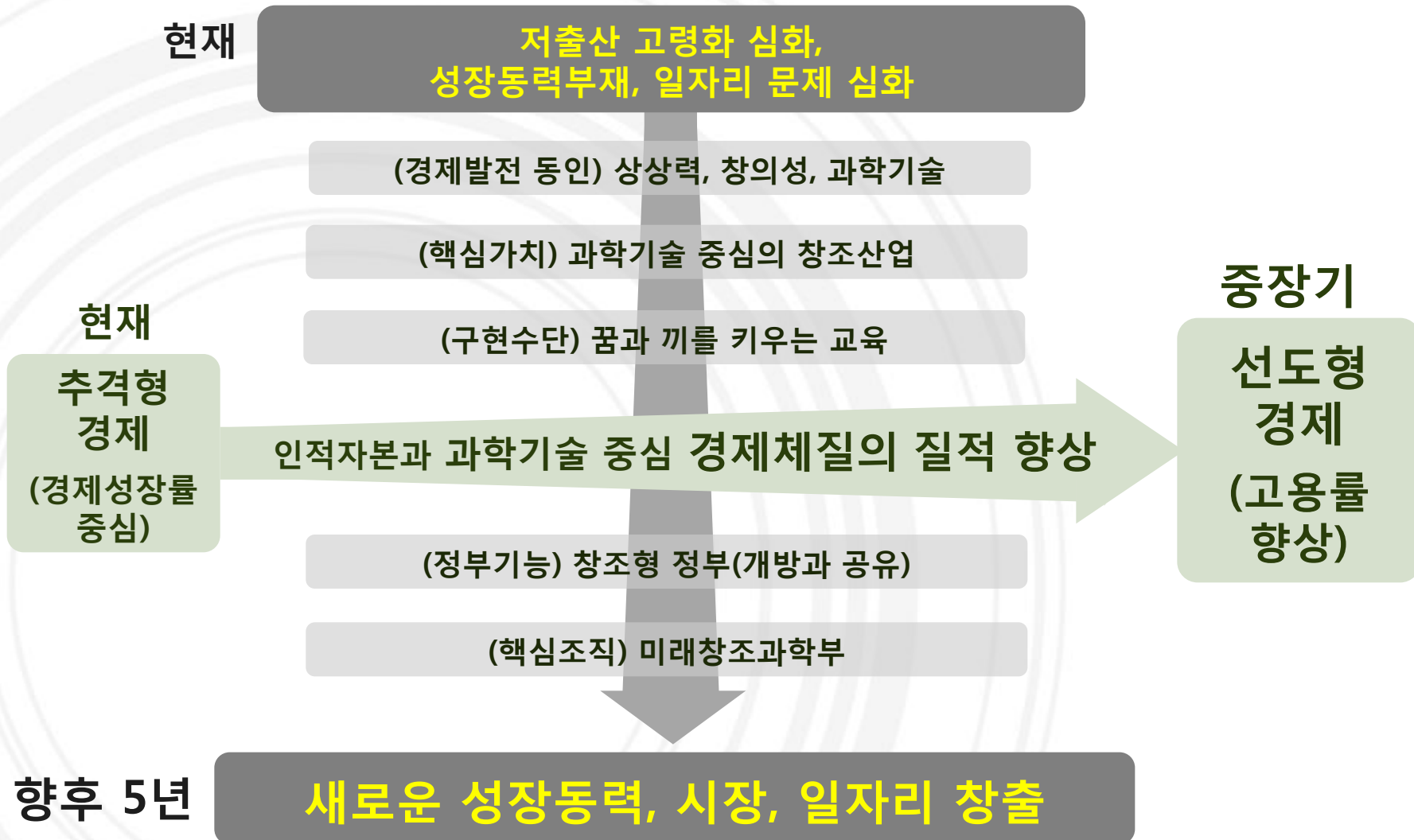
취임사
(2013. 2. 25)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3. 3. 28)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산업 융합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핵심가치를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이끌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창조산업(국정과제)

- **(신성장동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과 융합
- **(사회이슈해결)** 고령화·에너지 등의 국가당면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新시장 창출 지원
- **(실용기술 활용)**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 투자자를 매칭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R&D와 공공구매 연계 등 지원
- **(과학기술 서비스)** 빅데이터·초고성능컴퓨팅 등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 **(거대·전략기술 기반산업)**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대형 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 **(기타)** 국정과제와 취임사에서 콘텐츠산업 진흥 방안제시
 - (국정과제)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 (취임사)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견인 및 새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7대 실천전략(창조경제론)

- 전 산업에 국민행복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실현
- 창업국가 코리아
-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시작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 41개 국정과제

1.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4 창 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창조경제 생태계



(과학벨트) 과학·문화·산업 융합지식생태계 조성
(IBS) 인근 대학·연구소, 기업체와 소통과 융합 중심기관

기존 vs.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장기 경제침체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국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 추진 목표는 유사하나 구성요소 범위는 확대

기존 개념

박근혜 정부



무에서 유를 창조(문화, 예술 중심)
+ 융합적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문화, 예술, **과학기술 + ICT 등 중심**) + 융합적 창조



[전문가 집단]
- Super Core Class & Creative Professionals
- STEM 분야 인력



[전문가 집단] + **[일반국민]**



문화, 예술산업 중심(INPUT(창조성)중심)
- 주요국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



[기존 범위-콘텐츠, **5대 킬러 콘텐츠**] +
신산업(과학기술+아이디어·상상력 융합)
- 국가 성장동력을 모두 포괄

※ 창조기업의 범위는 창조산업 범위에 따라 유동적



도시(지자체) 중심-도시 내발적 발전전략



중앙정부 중심 - 국가 발전 전략



문화, 예술, 도시발전 등

창조성
지식재산권
새로운 일자리
창의적 인력양성

**과학, ICT, 융합, 생태계, 국가발전
창업 등**

4

최근 주요 논의 이슈

-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의가 모호한가? (국가 및 국제 기구에 따라 상이)**
 -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 기존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던 문화산업, 콘텐츠, 지역발전 분야 용어와의 차이는(호환성)?
- ◉ **창조경제 핵심 창조산업(성장동력?) 범위는? (창조, 창조경제 정의에 따라 유동적)**
(영국, 일본이 최근 창조산업 범위 확대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그 범위는 기존 문화 및 예술 분야에 한정)
 - 정부R&D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중점 육성 기술 및 산업 선정, 지자체, 출연연 등 R&D actor들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조속히 명확한 범위 제시가 필수
 - 과학기술표준분류, 산업기술분류 등을 활용한 제시가 가능한가?
 - INPUT(창의성) vs. OUTPUT(일자리 or 경제기여도) oriented approach?
 - 창조산업 및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영역이 기존 분류로 가능한가?
 - 기존 중점추진 과학기술 및 집중 육성 산업분야와의 연계는?
- ◉ **창조경제 성과 분석, 국제비교 등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은?**

- **국민의 창의성 활용 및 증진을 위한 전략과 방안은?**
 - 현재의 창의성 활용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성 확대 방안? Crowd Funding?
- **창조경제, 혁신의 핵심인 민간기업과 정부의 상호 역할은?**
 - 창조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생태계 창출형R&D 주체는 민간기업
- **창조경제 생태계의 유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부 생태계의 혁신역량 확보와 하부 생태계 구성요소 간, 하부 생태계 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은?**
 - 생태계의 핵심은 '개방적 사고'로 하부 생태계 구성요소 간 개방, 생태계 간 개방뿐만 아니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 연구소 및 민간기업, 우수 인재의 영입을 위한 개방형 전략도 매우 중요
- **향후 국가간 기술개발 보다 경쟁과 함께 우리나라 견제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만의 기초원천 기술 확보 전략은?**
 - 정부R&D 투자 40%의 기초연구 투자 전략은?
- **대표적 창업국가인 이스라엘이 창조경제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창업차원을 넘어 대학 중심 장기적 안정적 연구지원을 통한 우수 기초연구 성과창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고려할 필요**

감사합니다!

차두원

doowoncha@kistep.re.kr | (02) 589-2987

www.facebook.com/whosdadi